

제1차 세계대전시 베르덩(Verdun)전투의 실상과 전투교훈

金 武 一

(국방대 교수, 전 주프랑스 국방무관)

1. 머 리 말
2. 1916년의 베르덩전투 실상
3. 1917년 8월-1918년 11월의 베르덩전투
4. 전투교훈
5. 맺 음 말

1. 머 리 말

베르덩은 뫼즈(Meuse)강가의 요새지역 내에 위치한 국경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이다. 20여 개의 대형요새와 40여 개의 중간크기의 성채에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베르덩지역은 울창한 산림과 깊은 골짜기가 얽히고 설켜 침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작은 산이며 오른쪽으로 뫼즈(Meuse)강이 흐르고 있다.

요새의 가장 바깥쪽은 대부분이 400m 고지군을 이루고 있고 주변지형을 강제하는 방어책의 핵심인 보(Vaux)와 두오몽(Douaumont)거점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요새의 안쪽에는 수빌(Souville), 따베느(Tavennes), 그리고 베르덩 가까이에는 벨빌(Belleville), 생미셸(St-Michel), 물랭빌(Moulainville), 벨뤽(Belrupt)요새가 위치하고 있었다. 요새는 샌드위치 공법으로 구축하였는데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구축한 후 성토하였으며, 상층부는 2m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강하였다. 가장 큰 요새에는 500여 명의 수비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155mm 중야포, 포탑에 탑재된 기관포, 대구경 기관총들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 요새들은 측방사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참호와 연결된 기관총진지를 배치하고 있었다.

베르덩전투는 세계전쟁 역사상 작은 지역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으며 가장 참혹하고 긴 전투였다. 베르덩전투는 10km도 채 안되는 전장에서 1916년 2월 21일부터 1916년 12월까지 지속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 양측에서 약 70만명의 전사상자(전사, 부상, 실종)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전략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참혹한 손실을 보아야 할 하등의 정당성도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기간중 이 베르덩전투는 독일과 프랑스로서는 문자 그대로 양국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려 있었던 한판의 승부처였다.

베르덩에 대한 독일군의 선제공격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저지되었고, 프랑스군은 그들의 조국을 지켜 내었다. 독일군이 공격을 개시한 이후 6개월간 프랑스군은 아주 불리한 제조조건(諸條件)을 용기와 인내로써 극복하고 전선을 지탱해 주었다. 만일 프랑스군이 패퇴(敗退)하였다면, 솜므(Somme) 지역에서 영국군의 공격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그리고 미국의 참전결의가 굳어지기 전에 종국적인 승리가 독일에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전투기간중 프랑스 국민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독일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느 빠스롱 빠(Ne passeront pas!)”라는 표어아래 굳게 단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6년 7월 2일부터 시작된 솜므(Somme) 공세는 즉각적으로 베

르덩전투를 종결시키지는 못했으나, 독일군의 일방적인 공세를 억제하고 서서히 독일군의 병력을 흡수하여 그 전투력을 감소시켰다. 이리하여 세계 제2차대전의 스탈린그라드(Stalingrad) 전투와 같이 양국(兩國)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저지하여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다음은 프랑스의 베르덩에 위치한 프레몽(FREMONT)사가 발간한 「베르덩전투의 역사적 안내서」에서 발췌 번역한 전투실상의 내용들과 이 전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투교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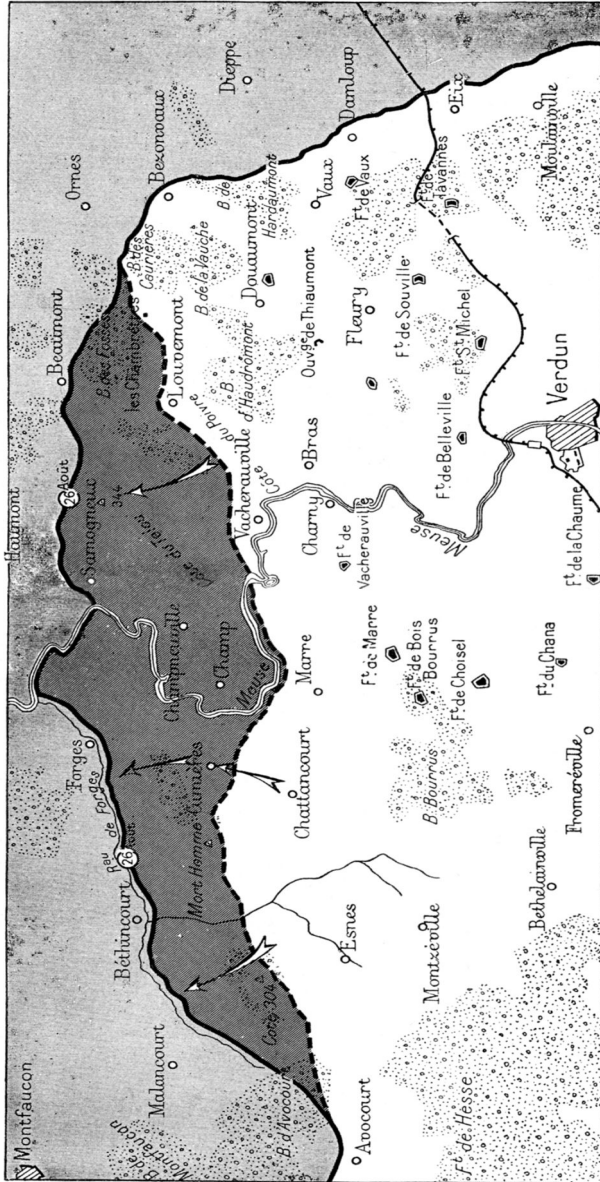
2. 1916년의 베르덩전투 실상

1915년까지 독일은 특히 아르뚜와(Artois : 5-6월), 샹빠뉴(Champagne : 9-10월)지역에서 방어적인 상태를 취했다. 세르비아와 러시아에서 그들의 승리는 서부전선에서 획득할 수 있는 최종의 승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독일은 연합군들의 공격과 병력, 물자의 소요가 증가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하여 선수를 치는 것은 그 공격을 실패하게 하거나 작전의 주도권을 독일이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었다.

이리하여 전반적인 상황이 아직까지는 독일에 유리하였으나, 독일은 차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은 아직도 종국적인 승리를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합군에 의하여 포위된 상태에 있음으로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결국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연합국에게 압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Falkenhayn)은 조속한 시일내에 일대 결전을 각오하고, 그 결전장으로 서부전선의 베

<그림 1> 1916년 2월까지의 베르됴전선



르덩(Verdun)을 선택하였다.

그가 서부전선에 착안하게 된 것은, 첫째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4월 이전에는 불가능하고, 둘째 이탈리아에 대한 공격은 전쟁결과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르덩을 선택하게 된 것은 서부전선 중 북 플랑드르(Flandres)지방은 저지(低地)이며 소택(沼澤)지가 많으므로 이른봄에 대규모적인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적당하며, 남부 플랑드르(Flandres)지방에 대한 공격에는 약 30개 사단이 필요한데, 이 많은 병력을 타지방에서 차출하면 샹빠뉴(Champagne)와 로렌스(Lorraine) 등지가 위협에 빠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베르덩은 프랑스군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강타하여, 펌프로 물을 퍼내듯이 프랑스군의 혈액을 고갈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즉 베르덩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여 타 전선에 있는 프랑스군의 예비병력과 군수품을 흡수해 버리려는 것이었다. 또한 만일 프랑스군이 전력을 다하여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점령하여 '베르덩이야말로 세계최강의 요새'라고 믿고 있는 프랑스국민과 병사에게 치명적인 좌절감을 주고, 계속 전진하여 프랑스군의 우익(Lorraine방면)과 좌익(Champagne방면)을 분리시키고, 파리로의 통로를 열며, 프랑스군에게 툴(Toul)과 랭스(Reims)사이의 진지에서 퇴각을 강요하고, 나아가 파리-낭시 철도를 장악함으로써 동북부 로렌스와 이 일대의 요새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할 계획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록 이 공격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대 타격을 가하기만 하면 프랑스는 전의를 상실하여 단독강화에 응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독일은 베르덩 전면 약 13km 전선에 3개 군단(7예비, 제18군단, 제3군단)의 병력과 보병과 더불어 기동할 수 있게 개량한 1,400문의 포를 집결시키고, 도로와 철도를 신설, 확장하고, 탄약과 기타 군수품을 집적하였다.

베르덩의 돌출부는 공격과 화력을 집중하기에 용이하였다. 뫼즈강의 오

른쪽에서 방자(防者)는 뫼즈(Meuse)을 향하여 등을 대고 싸웠고, 베르덩지역은 지역내의 작은 기복과 산림들은 병력들의 이동에 적합하고, 포병의 집중사격으로부터 엄폐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독일군 쪽에는 메쯔(Metz)부근에 14개선의 궤도를 가진 대규모의 철로가 있어서 병력과 물자수송에 용이하였다.

프랑스군 쪽의 베르덩에는 한 개의 넓은 도로가 생메느울(St- Menehould)을 통하여 베르덩과 나머지 지역간을 연결해주고 있었으나, 이 도로는 포병사격에 의하여 쉽게 단절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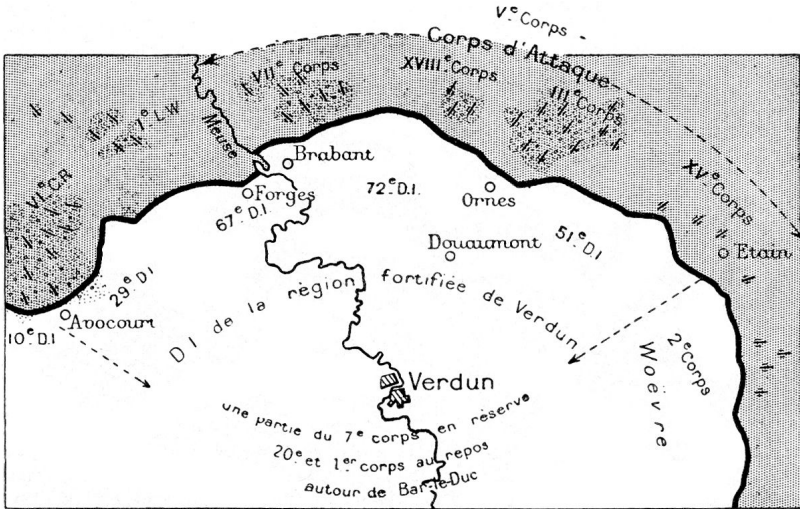
(1) 독일군의 기습(奇襲)작전 개념

“엄청난 포병화력을 집중시키고, 베르덩과 프랑스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로를 포병사격으로 단절시켜, 프랑스의 방어진지를 괴멸시키고, 대구경 포탄의 최후방어사격으로 방어병력들을 고립시킨 후, 손실과 대규모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고 베르덩으로 정면공격하여 마지막 저항병력들을 분쇄한다”는 것이 독일군의 기습 작전개념이었으며, 이 계획은 1916년 2월 21일 독일군에 의해 그대로 시행되었다.

(2) 베르덩전투의 성격

베르덩전투는 하나의 분쇄, 상호분쇄전투였다. 전투수행방식은 모든 구경의 화기사격을 한 개의 전선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역에 집중시키고, 점령하고자 하는 하나의 진지뿐만 아니라 후방의 지원진지까지 가능하면 집중시킨다는 것이며, 이 시스템의 형상은 마치 파성추(破城槌)가 성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절구공이가 수직으로 내리찍고, 포위된 지역을 망치로 두들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림 2> 1916년 2월 21일 쌍방의 병력 배치도



철구공이가 내리찍고 또 내리찍으며, 식량과 탄약의 운반작업도 300m 이상을 온전하게 이동할 수가 없었다. 무너진 구호소내의 부상자들은 정신착란으로 헛소리를 내지르고, 가끔 4분의 1리터 분량의 병에 채워진 물이 한 사람의 하루식량이 되기도 하였다. 포위된 지역내의 너무 좁은 간격은 양 포병간의 사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뒤죽박죽이 된 양편의 보병들이 수류탄, 기관총, 화염방사기로 1m²내에서 서로 전진하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다.

베르덩에서 어느 날 새로운 부대의 분대장이 방금 교대되어온 엽기병(獵騎兵)의 한 장교에게 “우리의 전선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하고 묻자, 그 장교는 “저기 우리 엽기병들이 죽어있는 곳, 나란히 죽어서 누워있는 곳 바로 그 곳이 우리의 전선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베르덩에서 어느 날 대대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락수단이 불통이 되자 연대장의 지휘소로 20여명의 연락병들을 전달형식으로 보냈다. 그들

은 연대지휘소로 가기 위해서 또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통로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튿날 대대장은 20명 모두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0명은 연대지휘소로 가는 통로에 다른 10명은 대대로 되돌아오는 통로에 죽어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대대장이 베르딩 최전선의 그의 부하들을 만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하여 산 위로 올라갔다. 제1선은 포탄 구멍을 연결한 하나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처럼 보였으며, 포탄 구멍 속에 있는 병사들은 양탄자처럼 보였다. 그는 어두움이 가득 찬 양푼 같은 구멍 속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조용히 말했다. 왜냐하면 밤이 되었고, 바로 저기에 독일군이 있기 때문이었다. “괜찮은가?”하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마치 암호를 말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네, 괜찮습니다. 적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대장님!”하고 답하였다. 그는 좀 더 멀리 다른 곳으로 돌면서 “괜찮은가?”라고 물었더니, 어둠 속의 각각의 구멍 속에서는 똑 같이 암호를 말하는 것처럼 대답하였다.

(3) 독일군의 공격(1916년 2-8월)

1) 기습(奇襲)

1916년 2월 21일 07시 15분 독일군은 40km의 전선에 걸쳐서 뉘르(Meuse)강의 양안에 사격을 가하였다. 동시에 베르딩에 조직적으로 사격을 가하였다. 마지막 베르딩 주민들의 철수는 군 당국에 의하여 25일 자정에 이루어졌다.

10시간 동안 독일군의 모든 구경의 화포와 지뢰발사기들이 쉴새없이 연속사격 속도로 계속되었다. 전선부근의 모든 숲 속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보였다. 이 어마어마한 파괴사격은 중 포탄의 일정한 비율로 실시되었다. 즉 150mm, 210mm 포가 일제사격으로 날아왔다.

이러한 화포의 일제 세례하에 참호와 교통호들은 평평하게 되었고, 나무들은 줄기와 가지들이 찢기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마을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독일군 보병들의 공격은 17시 15분 오몽(Haumont)에서 오른느(Ornes)간 해질 무렵에 실시되었다. 제7·18·3군단 등 3개 군단이 진격하여 왔으며 그들은 마치 경작지로 변모된 지역을 완전군장으로 걸어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

프랑스군 제51불랑쥬(Boulange)사단, 제72뵘스뜨(Bapst)사단, 제30크레띠앙(Chretien) 연대병들이 이 충격전을 잘 견디어 내었으며, 증원부대들이 도착하기까지 3일 동안 지탱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최대의 포병준비사격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전투가 계속되었으며, 드리앙(Driant) 대령이 지휘하는 엽기병들은 꼬르(Caures)숲 속에서 끈질기게 잘 싸웠다. 밤에는 적의 전진이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으나 독일군은 오몽(Haumont)숲을 점령하였다.

22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더 한층 맹렬한 포격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양측방이 포위된 꼬르숲에서 드리앙 대령은 그의 엽기병들을 철수시킨 뒤에 죽을 때까지 싸웠다.

이 기간동안 뵘브르(Woevre)지역과 뫼즈(Meuse)강의 좌안은 맹렬한 포병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23일 전투 또한 치열하였으며 보병 제351연대가 사모뇌(Samogneux)의 폐허에서 밤까지 완강하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브라방(Brabant)은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 좀더 동쪽에서의 전투도 치열하였다. 프랑스군이 꼬르숲을 역습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에르브부와(Herbebois)에서는 공격을 당하였다. 제51사단은 포스(Fosses)숲 방향으로 전진하던 적에게 심대한 손실을 가한 뒤 철수하였다. 저녁에 붉게 물들고 있는 지평선 아래로 사모뇌(Samogneux)-보몽(Beaumont)-오른느(Ornes)전선으로 형성되었다. 밤에는 사모뇌가 적의 수중에 넘어갔으며 상황은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24일 뫼즈강 좌안의 프랑스 포병부대로부터 막대한 포격을 받아온 독일군은 공격을 위한 증원군을 투입하면서 344고지, 사모뇌의 동쪽, 포스(Fosses)숲, 솜므(Chaume)와 오르느(Ornes) 마을까지 탈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프랑스군의 증원부대가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그 부대들은 제7군단 예하의 제37보병사단, 제20군단의 제31·306여단들이었으며, 뫼즈(Meuse)로부터 뵘브르(Woevre)까지 임시로 작전지휘권을 맡은 발푸리에(Balfourier) 장군의 지휘하에 있었다. 또한 그 날 뻬땡(Pétain) 장군은 베르딩지역 사령관 까스텔노(Castelnau) 장군과 작전 지휘권인계·인수에 들어갔다.

25일 딸루(Talou) 고지와 루브몽(Louvemont) 마을의 방어를 책임진 제37사단은 맹렬한 적의 공격을 장시간 효과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오른쪽 독일군은 두오몽(Douaumont) 방향으로 전진하면서 기슭에 의하여 그 요새를 탈취하고, 보쉬(Vauche)숲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진하여 왔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제31여단의 영웅적인 방어 앞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또 제95보병연대도 용감히 잘 싸웠다. 이 부대의 측면으로 적이 전진하였지만 딸루 고지를 방어하고 있는 제37보병사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 동안 뵘브르(Woevre) 평원 내에서는 혼합된 병력으로 지탱되고 있던 돌출된 전선이 위험에 처해지자 자발적으로 뫼즈의 상류지역으로 병력들을 철수시켰다. 이 철수를 엄호하고 있던 엄호부대들은 철수를 은폐하였으며, 지정된 전선에 재편성을 하였다.

25일 밤부터 26일 사이에 뻬땡(Pétain) 장군이 부대지휘권을 인수하였으며, 그는 즉시 전선을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였다. 바즈레르(Bazelaire) 장군은 아보꾸르(Avocourt)에서 뫼즈강까지의 좌안을, 기요마(Guillaumat) 장군은 뫼즈강에서 두오몽(Douaumont)까지, 발푸리에(Balfourier) 장군은 이 지점에서 뵘브르(Woevre)까지, 뒤세장(Duchesin) 장군은 뫼즈강의 상류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참호는 파괴되어 없어지고 뻬땡 장군은 전투 중에 최소한 요새와 연결이

되는 전선을 형성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제2, 3선의 반대 사면(斜面)에 제59사단 전체를 투입하였고, 수이이(Souilly)를 경유하여 바르 르 뒤크(Bar-le-Duc)에서 베르덩에 이르는 도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13개 대대를 배치하였다. 이 귀중한 도로는 매일 병력과 탄약의 재보급을 위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루에 1,700대 이상의 트럭과 자동차가 왕래하였다. 또한 이 도로는 베르덩 전투기간 내내 베르덩의 생명줄 역할을 하였으며, 빼빼 장군 또한 그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방어를 하였으며, 적의 돌진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26일에는 제39사단이 제37사단과 교대를 한 후 뿌와브르(Poivre) 고지에 대한 적의 모든 공격을 격퇴하였고, 제31여단 또한 제2사단과 야간에 교대가 될 때까지 조금도 약화됨이 없이 두오몽(Douaumont)을 잘 확보하고 있었다.

그 후에 전투는 두오몽 내의 거리와 그 부근에서 계속되었으며, 독일군은 결국 3월 4일에 두오몽을 탈취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독일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으며, 강의 우안에서는 실패하였다. 두오몽에 정지된 독일군은 강 좌안에 배치된 프랑스군에 의하여 후면을 탈취 당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동시에 또는 축차적으로 그들은 강의 양안에서 작전을 하게 되었다.

2) 측면전투(1916년 3-4월)

독일군은 기대했던 목표인 뫼즈강의 우안을 탈취하지 못하자 강의 좌, 우 양안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다.

3월 6일 2개의 독일군이 프랑스군 제67사단이 방어하고 있던 베랭꾸르(Bethincourt)로부터 포르쥬(Forges) 간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포르쥬를 탈취하였으나, 우와(Oie)고지에 대한 공격은 저지되었다.

3월 7일 독일군은 전진을 계속하면서 우와 고지와 꼬르보(Corbeaux) 고

지를 점령하였고, 프랑스군이 확보하고 있던 궤미에르(Cumieres) 마을에 대한 치열한 전투에 개입하였다. 좀 더 서쪽에서는 르모르옴므(le Mort-Homme) 전방에서 독일군의 공격은 좌절되었다.

3월 8일 강의 좌안에서 프랑스군이 꼬르보(Corbeaux)숲을 재탈취하고 있는 동안에 강의 우안에서는 독일군이 5개 군단을 전선에 투입하면서 프랑스군에 대하여 총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보(Vaux) 마을의 일부만을 탈취하였을 뿐 막대한 손실만 입고 실패하였다.

3월 9일 독일군은 르모르옴므 사면의 저지대를 점령하면서, 동시에 전선의 다른 끝 부분을 점령하였으나, 보(Vaux) 요새에 대한 공격은 무위로 끝났다. 그러나 그들은 보의 점령을 거짓으로 발표하였다.

3월 10일 조프르(Joffre) 장군은 베르덩을 사수하고 있는 프랑스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3주일동안 여러분들은 적들이 우리에게 가한 가장 치열한 공격에 대하여 잘 방어하고 있다. 독일군은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장 강력한 부대와 포병을 투입하였다. 그들은 베르덩의 점령은 그들의 동맹국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중립국들이 독일의 군사적 우위를 실감하도록 할 것으로 희망하였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들을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아직도 여러분의 눈앞에 건재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독일군의 베르덩에 대한 공격을 여러분들이 저지하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3월 11일부터 4월 9일 간 전투는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확대된 공격은 국지전, 단기전, 격렬하거나 제한적인 형태로 계속되었다. 3월 14일 독일군은 르모르옴므(Le Mort-Homme) 서쪽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던 265고지의 제75여단을 제거하였으나, 동쪽부분은 실패하였다. 20일에는 아보꾸르(Avocourt)와 말랑꾸르(Malancourt)숲이 독일군의 수중에 넘어갔다. 3

4월 31일에는 치열한 교전 끝에 말랑꾸르(Malancourt)가 독일군에 점령당하였고, 4월 8일에는 베멩꾸르(Bethincourt)가 탈취 당하였다. 강의 우측에서는 보(Vaux) 주변에 대한 엄청난 노력 끝에 독일군은 까이에뜨(Caillette)숲과 보프레리(Vaux-Fleury)의 도로에 도달하였으나 그러나 제5사단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4월 9일 정오에 독일군은 맹렬한 공격을 강의 좌측과 우측에 가하였다. 그러나 강의 좌측에서 독일군 5개 사단은 격퇴되었으며, 독일군은 도처에서 실패하였으나, 단지 르모르움프에서는 제42사단의 영웅적인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북동쪽의 사면을 점령하였다. 강의 우측에서는 프랑스군이 장악하고 있는 뿌와브르(Poivre) 고지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였다.

이튿날 뻬땡(Pétain) 장군은 그 날의 일일전투상보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4월 9일은 우리 프랑스군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루였다. 독일군의 맹렬한 공격은 도처에서 격퇴되었다. 보병, 포병, 공병, 제2군의 항공병들은 모두 영웅적이었다. 모든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린다. 독일군은 의심할 여지없이 또 공격해 올 것이다. 어제와 똑 같은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여러분 각자는 노력하고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기 바란다. 용기를 가져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뻬땡(Pétain)”

4월 30일 총사령부로 전속되는 뻬땡 장군의 후임으로 니벨(Nivelle) 장군이 부임하였다.

3) 소모전(1916년 5-8월)

5월에 들어서도 독일군은 르모르움프(Le Mort-Homme)에서 저지 당한 뫼즈(Meuse)강의 좌측에 대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서쪽으로 공격전선을 확대하면서 독일군은 견고한 지원진지와 중요한 관측소가 위치한 304고지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였다. 5월 23일 이 고지는 점령당하였으나, 그 다음날 탈환되었다. 1개월 간의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전투 후에 독일군은 르모르움르 산봉우리와 304고지의 북쪽 사면만 점령하였을 뿐이었다.

독일군들이 위치하고 있는 뫼즈강의 좌안에 대한 구출작전을 위하여 5월 22일 제5사단이 두오몽(Douaumont) 방향으로 강의 우안에 대하여 공격하였다. 중앙에 대한 공격은 성공하였으나, 독일군들은 요새의 내부에서 저항하였다. 5월 24일 독일군의 제1군단의 많은 예비병력들이 독일군들을 구출하기에 이르렀다.

두오몽이 만약 독일군에게 남아 있었다면 이 공격은 독일군의 예비병력들을 개입토록 하여 강의 좌안을 구출할 수 있는 작전성공이었다.

전투는 끊임없이, 가차없이 지속되었다. 독일군은 솜므(Somme) 전선에서 영-프군의 공격을 염려하여 베르덩에서의 전투를 종결짓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독일군은 공격을 서둘렀다. 공격시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불요불굴의 의지와 저항에 부딪쳤다.

4월에 독일군은 보(Vaux) 마을을 점령하였는데 그 후부터 요새에 대하여 악착같이 달라붙었다. 6월 2일 독일군은 요새의 상층부를 점령하였으며, 수비대를 제거하는 데에는 6일이 소요되었다.

또 두오몽(Douaumont)에서는 동시에 프루와드떼르(Froideterre)을 향하여 공격하였다.

6월 9일 띠오몽(Thiaumont) 농가는 점령되었고, 보루는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다.

강의 좌안에서는 독일군의 공격이 재개되었다. 5월 31일 뫼즈(Meuse)의 계곡으로 르모르움르를 포위하면서 샤흐꾸르(Chattancourt)에 도달하였다. 프랑스군은 역습으로 독일군을 꾸미에르(Cumieres)까지 퇴각시켰다.

304고지의 정상을 독일군이 점령한다면, 남쪽의 사면이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었다. 독일군은 부뤼(Bourrus)숲의 강력한 저지선으로부터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강의 우안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두오몽(Douaumont)과 보(Vaux)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수빌(Souville)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저지대에 위치하여 베르덩의 분지를 눈 아래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곳이 곧 중대한 결정을 할 곳이었다.

6월 23일 7만명의 독일군이 띠오몽(Thiaumont), 플뢰리(Fleury), 보(Vaux) 전선에 투입되었다. 띠오몽의 장애물은 점령당하였으며, 공격제파는 프루와드페르(Froideterre) 장벽까지 도달하였으나 곧 바로 프랑스군의 역습으로 띠오몽 고원까지 격퇴되었다. 중앙전선에서는 플뢰리의 양 측방을 포위하면서 독일군들은 플뢰리 바로 앞까지 점령하였으나, 수빌 전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하였다.

7월 11일 독일군은 4만명을 투입하여 플뢰리에서 담루(Damloup)까지의 공격전선을 압박하였다. 플뢰리를 우회하면서 마을의 협곡을 통하여 침투하였으며, 한 순간 수빌 요새까지 도달하였으나 곧 바로 격퇴 당하였다.

독일군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 공격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독일군은 심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7월 1일 솜즈지역에 대한 영·프군의 공격으로 증원도 받지 못하였다.

5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던 베르덩이 구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전투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독일군은 주로 16번이나 주인이 바뀐 띠오몽의 장벽주변과 8월 18일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점령한 플뢰리 마을, 수빌을 우회하려고 하였던 보(Vaux)의 숲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였다.

(4) 프랑스군의 공격전환과 베르덩의 구출

1) 1916년 10월 24일의 프랑스군의 공격

1916년 8월 베르덩전투는 독일군의 커다란 실패로 끝났으나 프랑스군에

계는 하나의 대승리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었다.

베르딩 주위 요새들의 방벽을 집중공격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수백 미터의 땅을 탈취하기 위한 작은 공격들은 취소되었다.

이 작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니벨(Nivlle) 장군과 망쟁(Mangin) 장군은 엄청난 포병화력인 290문의 야포, 300문 이상의 중화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11보병연대의 증원을 좌측에서 받게된 제38사단, 제133사단, 제74사단 등 정예 3개 사단이 제1선에서 가담하게 되었으며, 독일군은 제1선에 7개 사단을 배치하고 대치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지휘부는 프랑스군의 능력, 교육훈련, 그리고 새롭게 체계적으로 개발된 전술에서 우위성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보병과 포병간의 까다로운 연결문제도 면밀하게 연구된 시간표에 의해 해결되었다.

공격부대들은 이동식 엄폐물 뒤에서 전진하면서 정해진 리듬에 따라서 이동하였다. 이 공격은 개입된 부대들의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정지 등이 포함된 2단계로 구성되었다.

10월 21일부터 포병준비사격은 세밀한 계획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매일 매일 통제되었다. 23일 두오몽(Douaumont)숲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병들의 양공작전으로 독일군의 새로운 포병부대들의 위치가 노출되었으며, 이 포대들에 대하여 곧 바로 대 포병사격을 가하였다.

이 양공작전은 독일의 황태자가 강력한 프랑스군의 공격을 분쇄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하나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독일군은 조심하고 있었다. 23일 포로가 된 독일군의 한 장교는 '독일군은 프랑스군이 두오몽을 재탈환하지 않은 한 베르딩 이상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24일 11시 짙은 안개 덕분에 공격은 대성공이었다.

프랑스군은 오드로몽(Haudromont)의 채석장, 띠오몽(Thiaumont)의 경작지와 방벽장애물, 두오몽(Douaumont)요새와 마을, 까이에뜨(Caillette)숲의 북쪽 가장자리, 보(Vaux)의 연못, 피멩(Fumin)숲의 가장자리, 담루

(Damloup)의 포대까지 진출하였다.

10월 24일과 25일 프랑스군은 6천여 명의 포로와 15문의 야포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11월 2일 프랑스군은 독일군들이 포기하고 철수한 보의 요새를 2월 25일 상실한 후 감격적으로 재점령하였다.

12월 12일 니벨 장군은 최고사령관이 되었으며, 기오마(Guillaumat) 장군이 베르딩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2) 1916년 12월 15일, 프랑스군의 공격

베르딩의 해방을 보완하기 위하여 뫼즈강의 동쪽에 재점령된 보(Vaux) 요새와 두오몽(Douaumont)에도 승리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망쟁(Mangin) 장군은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였다. 베르딩군은 공격을 위한 대규모공사를 하였다. 약 30km의 도로건설, 그 중에 한 개의 도로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고, 포병을 위하여 두꺼운 널빤지를 깔았으며, 10 km 이상의 협궤(挾軌)와 평행으로 구축된 출발호, 접근참호, 탄약·수류탄·장비를 위한 창고를 마련하였고 이 대규모 공사는 가끔 폭격 하에서도 실시되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공격부대들은 공격출발선으로 올라갔으며 제126·38·37·133보병사단들이 공격1선에 가담하였고, 예비대로 제123·128·21·6보병사단들이 배치되었다. 포병들도 2개의 진지를 준비하고 공격을 지원하였다. 바세로빌(Vacherauville)과 베존보(Bezonvaux) 간의 10 km에 걸친 독일군의 전선은 제1선에 5개 사단이 또 예비부대 4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12월 15일 독일이 프랑스에 평화회담을 제의한 그 순간인 10시에 프랑스군의 공격제대는 포병의 집중적인 엄호사격하에 전진하였다. 공격목표들 중의 하나인 루브몽(Louvemont) 전면 제1, 2선의 바세로빌은 단 한번의 공격으로 수분만에 점령되었고, 두오몽(Douaumont) 전면의 숲과 협곡들은

장시간에 걸쳐서 점령되었다. 보세(Vauche)의 숲은 총검전에 의하여 탈취되었고, 상브레뜨(Chambrettes)와 베죠크(Bezonvaux)는 수일 뒤에 탈환되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그 결과 300여 명의 장교를 포함한 11,000명의 포로, 115문의 야포, 수백정의 기관총, 수많은 탄약과 장비를 프랑스군은 노획 또는 탈취하였다. 7월에 수빌(Souville) 요새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던 독일군들은 5km 이상 퇴각하였다.

망쟁(Mangin) 장군은 그의 부하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독일이 평화협정을 맺자고 프랑스를 초청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전투에서 승리한 그의 부하들에게 '여러분들은 프랑스 공화국의 훌륭한 대사'라고 칭찬하였다.

3. 1917년 8월-1918년 11월의 베르덩전투

(1) 1917년 8월 20일 프랑스군의 공격

수개월동안 베르덩은 거의 평온한 상태였다. 플랑드르(Flandre) 지방의 슈맹데담(Chemin des Dames)과 이조노(l'Ison)지역에서만 전투가 계속되었고 페탱(Pétain) 장군은 독일군을 베르덩 전선에서 교란하고자 하였다.

루브몽(Louvemont)-베죠크(Bezonvaux)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두오몽(Douaumont)을 완전히 구출하였다. 그러나 탈루(Talou) 고지와 강 좌안에 있는 관측소들은 독일군의 수중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독일군은 아직도 304고지와 르모르옴므(Le Mort-Homme) 고지 등 양호하고 견고한 진지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틸틈이 그들의 진지를 보강하였으며, 깊은 터널은 병력들을 잘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진지와와의 양호한 연결통로로도 사용되었다. 프랑스군의 새로운 공격준비를 잘 관측하면서 독일군은 엄청난 포병화력의 증강(약 400문)과 병력을 증원하여 아보꾸르(Avocourt)와 뵈브르(Woevre) 간의 전선에 9개 사단을 투입하고 5개 사단을 예비로 배치하였다.

프랑스측 지역에서도 수개월동안에 걸쳐서 준비를 하였다. 전장은 놀랄 만큼 변모되었다. 도로들은 정비되었고, 재보급은 오랫동안 연구되었으며, 통행은 두 배로 늘었으며 모든 구경은 2,500문의 포들로 포병이 준비하였다.

야포는 첫 번째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만명의 보병을 위하여 군단은 전선에 4만명의 포병을 배치하였다. 제13·15·16·32의 4개 군단이 8개 사단으로 전면, 2개 사단을 예비로 하여 이 공격에 가담하였다.

8월 13일 시작된 포병의 준비사격으로 독일군의 진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8월 20일 여명 전투에 참전하여 각종 관찰을 하고 있는 신예(新銳) 미국장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8개 사단은 공격을 개시하였다.

르모르옴므(Le Mort-Homme), 우와(Oie) 고지, 딸루(Talou) 고지는 탈환하였으나, 304고지는 독일군의 수중에 아직도 남아있었다. 르모르옴므 터널 안에서 1,000여 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 이튿날 사모뇌(Samogneux)와 레뇌빌(Regneville)도 탈환하였으며 304고지에 대한 공격도 체계적으로 재개시하여 8월 24일 탈환하였다.

8월 20일과 26일간의 전투에서 포로 9,500명, 야포 39문, 박격포 100문, 기관총 242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좌안에서 프랑스군의 전선은 포르쥬(Forges) 시냇가까지 도달하였다.

우안에서는 독일군이 거의 2개월 동안 상실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역습을 아무런 성과 없이 반복하였다.

베르덩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프랑스군의 제1전선은 북쪽으로 11km에 위치하고 있었다.

1916년의 10월 24일, 12월 15일과 1918년의 8월 20-21일의 3번에 걸친

전투로 독일군은 전쟁초기 3일부터 그들이 점령하였던 진지로부터 격퇴되었다. 독일군은 전쟁 초 2일간 수 개의 프랑스 사단들을 희생시켰던 1916년의 전선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2) 1918년의 베르딩과 아르곤느(L'Argonne)

1917-1918년의 겨울동안에 베르딩과 아르곤느(Argonne) 전선은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18년에는 어두운 전조(前兆)가 나타났다.

러시아가 전투를 포기하였으며, 그들의 병력을 감축한 루마니아가 연합국측으로 선회하였다.

독일은 1918년 연합국과의 전투를 종결짓고자 계산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뵘까르디(Picardie), 플랑드르(Flandre), 슈맹데담므(Chemins des Dames), 콩삐엔느(Compiègne) 전면, 샹빠뉴(Champagne)지역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공격들로 전선에 만곡부를 형성하는 성공을 가져온다면 매번의 작전에서 전선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독일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7월 18일 전투는 결정적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즉 연합군이 공세작전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7월의 역습으로 마른느(Marne)의 독일군을 베슬르(Vesle)까지 격퇴하였으며, 전투는 측방으로 전개되었다.

공격은 집요하게 규칙적으로 우선 좌측지역(8월 8일 영·불 공격)과 아르투와(Artois)지역에 8월 20일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합군들이 9월 1일 공격하였던 힌덴부르크(Hindenburg) 전선에 대하여 집중공격을 하였다.

이미 독일군들은 심하게 동요되었지만, 포쉬(Foch) 원수는 그들을 잠시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이 재점령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그는 공격을 강화하였다.

3개의 정면에서의 동시공격이 고려되었다. 좌측에서는 플랑드르(Flandres) 지역에서 알베르트(Albert)왕의 지휘하에 벨기에·영국·프랑스의 연합군이, 중앙에는 영국군 제3, 4군과 프랑스군 제1군이, 우측에는 샹빠뉴(Champagne)와 아르곤느(Argonne)지역에서 프랑스의 고로(Gouraud)장군의 제4군과 미국의 퍼싱(Pershing) 장군의 제1군이 공격하는 계획이었다.

(3) 1918년 9월 26일 미·프 연합군의 공격

미군은 이미 9월 12일에서 14일간에 생미이엘(Saint-Mihiel)의 만곡부를 제거하는 작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대공세작전 참여를 준비하고 있었다.

9월 26일 프랑스 제4군이 샹빠뉴(Champagne)지역의 독일군을 공격할 때, 미군은 퍼싱 장군의 지휘하에 아르곤느와 피즈강 사이를 공격하였다.

포병의 공격준비사격은 맹렬하고 간결하였으며,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새벽 05시30분에 미군은 아보꾸르(Avocourt)와 포르쥬(Forges) 간의 피즈강 좌측의 견고한 독일군의 진지를 혈기왕성하게 공격하였으며, 곧바로 독일군의 진지는 미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기동부대를 뒤따르고 있는 포병은 아침에 포르쥬 개울을 도하하였다.

미군은 오후에는 독일군에게 베르덩지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관측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지인 몽포퐁(Montfaucon)을 엄호하고 있는 독일군의 진지에 대한 치열한 전투에 가담하였으며, 신중하게 이 고지를 우측에서 포위하면서 세프사르쥬(Septsarges)까지 독일군을 밀고 나갔다. 저녁에 이 몽포퐁은 포위되었다.

9월 27일과 28일에 미군은 독일군의 역습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향하여 전진을 느리게 진행하였으며, 결국 몽포퐁(Montfaucon)을 탈환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8,000명의 포로와 100문의 포를 노획하였다.

10월 4일 퍼싱(Pershing) 장군은 전 전선에 걸쳐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의 계속되는 증원군의 가세로 저항은 강력하였다. 뫼즈강의 우측에서는 프랑스군의 제17군단과 2개의 미군사단이 합동으로 공격을 개시하여 1916년 독일군이 베르덩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던 유명한 그들의 공격개시선에 도달하였으며, 곧바로 그 공격개시선을 통과하였다.

10월 14일 총공격이 개시되었다.

독일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유리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전투에서 철수한 대대들은 후방에서 곧 바로 재급편하여 전투에 재 투입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랑프르(Grandpre)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9월 26일 이래로 20,000명의 포로와 150문의 야포, 1,000문의 박격포, 6,000여 정의 기관총을 손실 당한 후 10월말 드디어 독일군은 뫼즈강의 좌우안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4) 1918년 11월 1-11일

벨기에군은 그들의 담당부분에 대하여 실지를 회복하면서 그들은 조국의 중심부로 진격하고 있었다. 영국군은 릴(Lille)을 점령하였으며 독일군의 전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면서 생고뱅(Saint-Gobain)의 보루를 유린한 후 라옹(Laon)지역으로 침투하였다.

11월 1일 프랑스군과 미 제1군은 새로운 공세작전을 발표하였고 수km를 진격하였다. 독일군은 세당(Sedan)-메쯔(Metz) 간의 도로를 향하여 후퇴하면서 그 부근에 전력을 다하여 방어하고자 하였다.

11월 4일 미 제3군단은 무종(Mouzon)과 스프네(Stenay)간의 뫼즈강에

도달하였으며, 독일군은 뫼즈강의 우안으로 철수하였다.

프랑스군은 11월 8일에는 세당에, 11월 9일에는 메지에르(Mezieres)에 진입하였다. 오른쪽의 최극단지점에서 독일군은 11월 10일 뫼즈(Meuse) 고지의 저지대와 스펜네(Stenay) 남쪽에서 프랑스군 제17군단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11월 11일 로렌(Lorraine)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위협하에 독일군은 완전한 파멸을 회피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파괴된 야전에서 항복하였다.

4. 전투교훈

1915년 말까지의 상황을 개관(概觀)하면, 서부전선은 1914년이래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고 동부전선의 러시아군은 섬멸되지는 않았으나 개전 이래 잇따른 패배로 많은 손실을 입었으며 더욱이 국내사정이 곤란하여 쉽사리 공세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았다. 세르비아는 격퇴되었고 루마니아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였으며 다르다넬스(Dardanelles : Marmara해와 에게해 사이를 연결하는 유럽·아시아 대륙간의 해협)에 대한 영·불의 공격은 좌절되었다.

이리하여 1916년을 커다란 승리의 해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연합군측과 독일군의 양측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전술(前赴)한 바와 같이 독일군은 그러한 결전장을 베르덩으로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샹빠뉴(Champagne)와 아르투와(Artois)에서 양공(陽攻) 작전으로 프랑스군의 주의를 혼란시킨 후 기습을 감행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춘 독일군은, 지표면이 굳어지는 5월까지의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프랑스군에 대하여 2월 21일 새벽에 기습공격을 시작하였다. 프랑스군은 베르덩지역에 대하여 공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독일군의 공격은 새벽 7시 15분부터 시작하여 매시간 10만발씩의 포탄을 프랑스군의 머리 위에 퍼부어 제1, 제2방어선의 보루(堡壘)를 분쇄하였다. 프랑스군은 한치의 땅을 고수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했으나 승산은 없어지고 패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부지휘관들은 뫼즈강 선으로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프르(Joffre) 장군은 이를 단호히 물리치고 철수를 명령하는 자는 누구라도 군법회의에 회부(回附)할 것이라고 엄명하여 결사적인 방어를 독려했다.

이에 프랑스군의 소부대지휘관들은 무너진 보루와 탄혈(彈穴)에 기관총진지(機關銃座)를 구축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저항을 계속하였다. 이 결과 독일군은 베르딩 점령 목표일로 예정한 공격개시 4일 후인 24일까지 겨우 6km밖에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인 25일에 베르딩의 방어는 프랑스에서 가장 우수한 지휘관이며 이 방어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페탱(Pétain) 장군의 제2군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이날 독일군은 베르딩 지방의 최종 거점인 두오몽(Douaumont) 보루(堡壘)를 함락하여 베르딩과 파리 간의 도로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세는 최고조에 달하였고, 요새 수비대는 페탱의 예비군이 속히 도착하기를 기원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제 프랑스군은 범람(汎濫)하는 뫼즈강을 배후에 두고, 고지를 점령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독일군을 올려다보면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페탱 장군이 도착한 것이다.

독일군은 서전(緒戰)에서의 승리에 도취하여 베르딩 요새는 점령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기뻐하고 있었지만, 사실 공세의 예봉(銳鋒)이 꺾이고 만 것이다.

베르딩전투에 있어서 1916년 2월 26일은 마른느(Marne)전투에 있어서의 1914년 9월 9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역사에 길이 기념할 만한 날이다.

베땡 장군은 보루를 개수(改修)하도록 하고, 14일분의 식량을 분배하여 최후의 1인까지 그 방어진역을 사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또한 4개의 방어선을 설치하고 포병부대를 재편하였으며, 29일까지는 5개의 지원군단을 확보하였다. 이 동안도 독일군은 수차례에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오히려 많은 손실을 입고 격퇴·저지되었다.

그리고 프랑스군은 베르덩에 이르는 군용도로를 신설하여 수송문제를 해결하였다. 베르덩에는 2개선의 표준궤도(軌道)와 1개선의 협궤도(狹軌軌道)가 있었으나 전자(前者)는 독일군에 의하여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후자(後者)는 수송력이 미약하였으므로 독일군의 공세를 예측한 군부에서는 정부에 대하여 철도의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각하(却下)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군부에서는 자동차에 의한 수송을 계획하여 도로와 차량을 정비하여 왔던 것이다. 전투 중 300명의 장교를 포함한 3만명 이상의 병력과 3,900대의 차량이 수송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가장 바쁜 때는 트럭이 매 14초당 1대씩 운행되었다. 이 밖에도 도로의 개수를 위하여 많은 의용병(義勇兵)과 시민이 동원되었다. 참으로 베르덩은 이들이 아니었더라면 구출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2월말이 되면서 독일군은 진퇴양난에 빠졌으며 기습 가능성, 수적우세, 화력의 우세 등은 사라졌다. 한편 영국군은 솜므(Somme)지역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혹은 단념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봉착한 것이다. 확실히 결정적 승리의 기회는 이미 사라졌다. 즉 이 지역을 돌파하여 뫼즈강을 건너 파리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리고 비록 베르덩을 점령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장기간의 혈전을 겪어야 할 것이며, 그때는 프랑스군이 뫼즈강 서쪽 구릉에 2중, 3중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에 베르덩 점령의 전략적 가치는 상실되고 말 것이 명백하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공격을 중지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베르덩작전을 중지하면 수많은 병력손실은 수포화로 될 것이며, 이 작전의 준비로 대포

와 탄약의 집결, 철도와 도로의 재건, 경철도(輕鐵道)의 부설(敷設) 등을 위하여 적어도 1년 전부터 들인 막대한 노력을 포기하게 되며, 또 타 지역에서 새로운 공격을 취하려면 적어도 6개월 간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간은 적에게 선제권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더욱이 6월 이후에는 영국의 공격준비가 완료될 것이며, 러시아도 작년에 입은 패전의 상처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리하여 독일은 작전계획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베르딩 작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독일군 참모총장 팔켄하인(Falkenhayn) 장군은 아직도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생각은, 전술(前)술(術)한 바와 같이, 베르딩 점령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전략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이 작전의 승패가 양군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그로 인해 프랑스군의 전투력이 고갈(枯渴)되기만 하면 영국군의 투입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영국군의 하계공세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6일부터 재개된 공격에는 대포·폭탄·화염방사기·질식가스·기관총·착검보병 등이 동원되어 ‘사자(死者)의 구릉(丘陵)(Le Mort Homme)’과 보(Fort de Vaux), 두오몽(Douaumont) 보루에서, 7월 19일 팔켄하인(Falkenhayn) 장군이 해임되고 힌덴부르크(Hindenburg) 장군이 참모총장에 취임하여 공격중지를 명할 때까지 처절하게 반복되었으나, 양군 병사의 살육밖에는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제 독일군은 실패를 자인(自認)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편 솜즈지역에서 영·프 연합군이 공세를 취하므로 병력을 그곳으로 전용(轉用)하기 위하여 수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후는 프랑스군이 오히려 공세를 취하는 제2단계로 접어들어 8월부터 10월까지 두오몽(Douaumont)과 보(Vaux)에서 돌파하였으나 실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 두 지역에서 프랑스군이 1916년 2월의 전선을 회복한 것은 11월부터

시작하는 제3단계의 작전기간 동안의 일로써 이 작전은 1917년 여름까지 계속되었으며, 전 기간을 통하여 프랑스군의 사상자는 542,000명을 넘었고, 독일군의 사상자도 434,000명에 달했다.

우선 독일이 베르덩을 주 공격목표로 선정한 이유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군의 베르덩에 대한 모든 작전을 구상한 사람은 전쟁초기에 벨기에와 프랑스 작전에서 완전히 실패한 작전의 입안자였던 몰트케(Moltke)의 후임으로 1914년 독일군 참모총장에 취임한 팔켄하인 장군이었다.

팔켄하인 장군의 견해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베르덩은 프랑스군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강타하여, 펌프로 물을 퍼내듯이 프랑스군의 혈액을 고갈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다. 즉 베르덩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여 타 전선에 있는 프랑스군의 예비병력과 군수품을 흡수하여 버리려는 것이었다. 또한 만일 프랑스군이 전력을 다하여 방어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점령하여 ‘베르덩이야말로 세계최강의 요새’라고 믿고 있는 프랑스 국민과 병사들에게 치명적인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 보아서도 전쟁의 목표로 선정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즉, 베르덩은 독일군 지역으로 반원형으로 돌출 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독일군의 포병사격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15년 12월 24일 독일군은 베르덩에 대한 공격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 공격작전은 1916년 2월 12일에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독일군이 맡아서 수행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는 독일황태자가 지휘하고 있었으나, 그의 참모장인 코노벨스도르프(Knobelsdorf) 장군이 실제적으로는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독일군의 베르덩에 대한 공격은 최초로 계획된 2월 12일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고 말았다. 공격개시 직전에 눈과 비가 심하게 내리고, 추운 날씨관계로 지면이 결빙되었으며, 태풍이 뒤따랐고, 시계는 아주 불량하였

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공격개시선 부근에 준비된 대기호에서 공격을 미루고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기호는 잠시 공격을 위해서 대기하는 호이지 추위에 대비한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호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하에서 독일군들은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9일간을 심한 추위와 복통 및 불량한 급식으로 시달리면서 공격명령이 하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드디어 9일 뒤에 기상이 양호하게 전환되면서 공격신호가 하달되었다.

제5군단의 지휘관들은 뫼즈강의 좌·우 양안을 동시에 공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팔켄하인은 그의 휘하에서 가용한 병력이 부족하다고 동시공격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뫼즈강의 우안에 제한적으로 10개의 독일사단을 전개하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베르덩의 전투를 통하여 도출해 낼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작전개념의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이다. 독일군 참모총장의 작전개념을 두고 참모총장과 예하 지휘관 사이에 하달된 작전명령을 이해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였다. 작전지휘관들은 가능한 한 빨리 베르덩을 점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팔켄하인 참모총장은 베르덩 방향으로 뫼즈강을 포위하여 프랑스군의 전력을 소모하도록 하는 공격을 원하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프랑스군을 철저히 분쇄하는 데 있었지 최초의 전투장인 베르덩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개시되었다. 팔켄하인도 지구전, 소모전보다는 베르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작전이 오히려 독일군에게 하나의 동기를 더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개념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과 내용의 차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작전에서 명확한 작전개념에 의한 전투가 수행되지 못했다. 전쟁의 원칙인 집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축차적인 병력투입으로 상대편인 프랑스의 방어준비에 시간을 허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돌파작전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한 병력운용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베르덩에 대한 프랑스측의 평소부터의 방어준비태세가 소홀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중요성이다.

전쟁초기부터 베르덩의 방어는 지나칠 정도로 소홀하였다. 1914년 리에쥬(Liege)와 안트베르프(Antwerp)의 함락 후 베르덩 주변의 요새들은 독일군의 대구경포의 포격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에 있었다. 프랑스 최고위사령부에서는 이 요새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방치해두고 있었다. 이 곳에 설치되었던 화기들은 다른 곳으로 대부분 이동시켜 버렸다. 베르덩 주변의 전선은 도랑만 남아 있었고 방어용 참호와 철조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 당시 베르덩지역에는 최소한의 탄약과 270여 정의 화기만 남아있는 반면, 독일군은 1,200여 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격 당시에 프랑스군은 34개 대대가 가용했지만 독일군은 전투에 익숙한 국경수비대로 구성된 72개의 대대를 전개할 수 있었다. 베르덩지역 사령관 에르쯔(Herz) 장군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독일지역에서 피난 온 독일인들이나 탈주한 독일군을 통하여 독일군이 베르덩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더한층 다급하게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샹띠이(Chantilly)에 위치한 조프르(Joffre) 장군 휘하의 프랑스군 총사령부에서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도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으며, 독일군은 지면이 굳어지는 5월까지의 공격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르덩지역에 대하여 공격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렇게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베르덩은 공격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판단만 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후일 부와 드 꼬르(Bois de Caures) 전투로 유명하게 된 드리앙(Driant) 대령도 베르덩 전선의 무방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특히 철조망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그는 직접 최고사령관 조프르 장군에게 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조프르 장군은 대노하기도 하였으나 그의 참모부에

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독일군의 공격직전에 프랑스군 최고사령부에서는 독일군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 최고사령부 참모장 드 까스텔로(Castelnau) 장군이 베르딩을 직접 방문하여 방어전선을 보강하도록 하였으나 철조망도 없는 빈약한 작업에 불과하였다. 독일군이 최초공격 개시일로 계획하였던 2월 12일야 2개의 사단이 베르딩지역에 보강되었다. 이러한 프랑스군의 무비(無備)의 자세는 결국 독일군의 기습공격을 허용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셋째, 기상은 작전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독일군은 최초 2월 12일에 베르딩지역에 대한 기습공격을 계획하였으나, 눈이 심하게 내리고 역수로 쏟아지는 비와 추위로 시계가 불량하고 결빙된 작전지역의 조건 등으로 9일이 지연된 후 기상상태가 양호하게 전환되자 2월 21일야 공격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에 프랑스군 측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증원병력들이 도착하였으며, 그들은 다소나마 그들의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방어작전을 위한 진지배치도 할 수 있었다. 독일군들이 계절적인 기상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작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그들의 작전은 기상악화로 지연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맞이할 뻔하였던 프랑스군을 구출해 준 결과가 되었다.

넷째, 군·관·민 총력안보태세의 중요성이다. 프랑스는 수많은 의용병들과 방어준비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베르딩 주민들의 덕분에 반격의 기틀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가 있었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국방은 군·관·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총력안보체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독일군의 베르딩지역에 대한 공격개시 직전에 이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

임한 페탱(Pétain) 장군의 지휘하에 군·관·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협소한 보급로 및 병력수송로를 보강하였다. 이와 같이 개수되거나 보강된 보급로를 통하여 밤과 낮으로 많은 군수물자와 병력이 지원될 수가 있었으며, 후일에 이 길은 ‘신성한 길’로 명명되었으며, 이 도로는 베르덩 전투 기간동안에 베르덩의 생명선과 같았다.

민·관·군이 이러한 철저한 방어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독일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지휘관(자)들의 전투지휘능력의 중요성이다. 베르덩의 전투를 통하여 프랑스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 받게 된 페탱 장군과 드리앙 대령을 비롯한 훌륭한 프랑스군의 지휘관들은 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용기와 병사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북돋아 전투력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돋보이는 전장지휘능력을 잘 발휘하였고, 상황변화에 따라서 프랑스군의 지휘관들은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 적합한 전투지휘와 방책을 강구하였다. 따라서 프랑스군은 끝까지 용감하게 전투를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 정신전력의 중요성이다. 전쟁초기에 빈틈없이 준비한 독일군의 공격에 대하여 열세한 무기와 장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국을 죽음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불타는 애국심으로 전투기간 중 프랑스 국민은 전후방을 막론하고 “독일군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느 빠스롱 빠(Ne passeront pas!)”라는 표어 아래 굳게 단결되어 있었다. 한치의 땅도 적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에 독일군의 공격계획은 이러한 프랑스군의 진지사수의 희생정신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질이 생겨났으며, 그 결과 베르덩 지역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었다.

일곱째, 적의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일군은 프랑스군의 전투력을 과소평가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전투초기부터 우세한 포병화력으로 기선을 제압하면 프랑스군은 쉽사리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열세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전쟁준비에도 불구하고 초기전투부터 독일군의 공격에 대하여 인내와 투지로써 잘 대응하였다. 적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손자병법의 교훈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지형과 상황에 맞는 무기사용이 전투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군은 두오몽 요새 전투에서 용맹한 프랑스군의 보병 제33연대의 방어진지를 유린하기 위하여 최초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였다. 30여 미터의 화염을 뿜어내는 화염방사기 앞에 프랑스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고, 그 결과 항복하는 프랑스군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정예 보병 제33연대도 결국에는 항복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후일 프랑스의 대통령이 된 유명한 드골(De Gaulle) 대위가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 화염방사기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군의 결사항전 의지 앞에 독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겪고 난 뒤의 미국이 동굴이나 지하 깊숙한 곳의 지휘부나 참호를 무력화하기 위한 소형 핵 폭탄을 제조하기로 한 것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5. 맺 음 말

베르덩전투는 제1차 세계대전시 가장 치열한 전투중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제국으로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전투의 하나이며 독일군 사령부는 전투의 소요량과 기간을 예측하지 못한 전투이었다. ‘프랑스의 심장’인 베르덩을 단순히 집어삼키고자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하고 병력을 투입하였을 때 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투 초기에 획득한 상대적인 이점도 보존하지 못하였다.

즉, 전투는 사전에 독일군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대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각 작전단계마다의 결정적인 상황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독일군이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병력들의 교체는 독일군의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1916년 2월 21일부터 1917년 2월 1일까지 독일군이 베르덩지역에 투입한 병력은 56.5개 사단, 즉 567개 대대였다. 이 56.5개 사단중에 6개 사단은 계속해서 뫼즈(Meuse)강의 양안에 개입하였으며, 다른 8개 사단은 2번, 또 다른 6개 사단은 3번이나 투입되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82.5개 사단, 180만명이 투입되었던 것이다. 최초로 독일은 며칠사이에 10~12개 사단의 투입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투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잘것 없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상대적으로 이 베르덩전투에서 불타는 애국심과 강인함으로 뭉쳐진 방어자들인 프랑스군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내었다.

최정예부대들을 운용하였던 독일제국으로서는 이 베르덩전투에서의 커다란 전략상의 실패를 가져온 결과를 얻었다.

힌덴부르크(Hindenburg : 1847-1934, 독일의 장군·정치가)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 베르덩전투는 마치 상처를 꿰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의 군사력을 완전히 고갈시켰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916년 9월 13일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베르덩시의 시장에게 이 시를 넘겨주면서 뿌엥까레(pointcare) 프랑스 대통령이 이미 선언하였던 것처럼 베르덩시의 벽들에는 다음과 같은 찬사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독일제국의 최대의 야망은 좌절되었다. 가장 극적이며 빛나는 대 승리를 이룩한 것은 베르덩이다.”

“조용하면서 끈질김과 함께 프랑스는 베르덩에 대답하기를 아무도 이 베르덩을 잇을 수 없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이 지구상의 구석구석에서 베르덩의 이름은 승리의 환호성과 회복된 인간성에 의한 기쁨의 환희처럼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등이었다.

오늘날 이 베르덩지역의 격전장(激戰場)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 국민들의 호국·보훈의 정신을 함양하는 역사적인 안보현장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7. 8, 심사완료일 : 2003. 8. 4)

주제어 : 세계 제1차대전, 베르덩, 애국심, 참호전, 정신전력

K C I

<ABSTRACT>

The Actual Circumstances and Combat Lessons Related to the Battle of Verdun in World War I

Kim, Moo-Il

The Battle of Verdun is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and lengthiest battle in world history. Never before or since has there been such a lengthy battle, involving so many men, situated on such a tiny piece of land. The battle, which lasted from 21 February 1916 until 19 December 1916 caused an estimated 1,000,000 dead, wounded and missing. The battlefield was not even a square ten kilometers.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these atrocious losses. The battle degenerated into a matter of prestige of two nations literally for the sake of fighting …….

The designer of the German plan of attack was General Erich von Falkenhayn, the German commander in chief, who had succeeded Von Moltke in 1914, whose campaign in Belgium and in France had failed completely.

Falkenhayn's view was that it would be beyond German military possibilities to gain victory in an all-embracing, massive offensive. He considered England to be Germany's most important enemy who would lose its strength as soon as France, its most important ally, would be defeated. England would then withdraw from Europe's continent. Then the unlimited submarine-war, put into action by Germany, would force England on its knees in the end.

It was for this reason that a war target had to be found that would be

so important to the French that they would be forced to deploy every man for the defence of that particular target, as they would never give it up voluntarily. Germany's aim would then be achieved: France would be forced to sacrifice its army till the last man and the French army would bleed to death. Then the French army could easily be defeated. Geographically this had to be Verdun.

Apart from the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there also was a military consideration for choosing this particular place as the target of war. It was because Verdun was situated in a salient in the frontline. As a result, the Germans surrounded the battleground in a half circular-shape and this gave the Germans a great advantage in their gunnery bombardments.

Verdun was a garrison-town situated in the Region Fortified de Verdun (RFV) at the river Meuse. It was surrounded by a double circle (largest diameter 50km) of 20 big forts and 40 medium sized fortifications in an almost impenetrable hill country, covered with woods, criss-crossed with deep clefts and gorges where the Meuse flows right through.

In the outermost circle of forts, Fort Vaux and the dominant Fort Douaumont were situated. These two forts were the cornerstone of the defence, towering high above the whole area at a height of 400 m. In the innermost circle of forts, Fort Souville and Fort Tavennes. Closer to Verdun, Fort Belleville, Fort St. Michel, Fort Moulainville and Fort Belrupt were situated. The forts had been built in a sandwich like a construction of reinforced concrete with a thickness of 2 meters, covered with a layer of soil, with 2 meters of reinforced concrete on top of it. In the largest forts, a detachment of 500 soldiers could be accommodated. The armament consisted of some heavy 155 mm guns placed in turrets which could be lifted and machine-guns of heavy calibre. The forts were surrounded by concrete fortifications, equipped with machine-guns for flanking fire and all connected by trenches.

The defence of Verdun had been seriously neglected ev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war. At the fall of Liege and Antwerp in 1914, the surrounding forts were virtually destroyed by the Germans and their Big Bertha's. The French supreme command therefore considered forts to be no longer useful for defence and had them dismantled. All of the guns that could be displaced had been brought elsewhere. The occupation of the forts had been brought back to a minimum. The defences around Verdun were also seriously neglected. The frontline around Verdun was often no more than a ditch and sometimes the second and third defence-line were simply absent. Defence-trenches and barbed wire entanglements were often not laid-out. The armament of the Verdun-sector was minimal as well. There were only 270 pieces of guns available with too little ammunition (whereas the Germans had more than 1.200 pieces laid-out).

There were no more than 34 French battalions available at the moment of attack. The Germans could deploy 72 battalions consisting of seasoned frontier-soldiers. General Herz, the commander in chief of Verdun, repeatedly plead for reinforcement of the lines, especially when it became clear from messages received from fled civilians and deserted Germans soldiers, that the Germans were preparing an attack on Verdun. The French Headquarters at Chantilly, which were under the command of Commander in Chief Joffre, however, paid no attention to the problems: 'Verdun is not a possible target', was their judgement.

On December 24, 1915, the decision was made to attack Verdun. The attack was planned to take place on 12 February, 1916. At the very last moment, the attack was cancelled. It had began to snow and rain severely; it was freezing; the wind had increased and turned into a storm and the visibility was very poor.

On Monday morning of 21 February, 07.15, the heaviest bombing that had thus far ever taken place in a war starts over the entire Verdun front on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river Meuse. The bombing had a frontal latitude of 40 kilometers. Verdun itself is also heavily bombarded; the entire

civilian population is evacuated.

At 17.15 the German soldiers reappear from their 'stollen' and begin their attacks on the Bois d'Haumont (by the VIIth German army corps), the Bois des Caures (by the XVIIIth German army corps) and the Bois de l'Herbebois (by the IIIrd German army corps).

At the French headquarters, it is slowly becoming clear that the situation is far more serious than initially thought. Joffre sends one of his members of staff to Verdun in order to observe the situation.

General De Castelnau occupies himself, at the arrival at Verdun on the 25th of February with the question of how Verdun can be saved. He takes measure: General Herr is dismissed and makes room for General Phillipe Petain, the commander of the 11th French army. His direct order is to organize the defence of the right—as well as the left riverbank immediately. Petain also organizes the supply route between Verdun and the hinterland. There is a narrow connecting road between Verdun and Bar-le-Duc which is improved and maintained in such a way that this becomes the life line for the French troops in Verdun. Later this road is called the Voie Sacree [Holy Road] ; the road along which long lines of people and materials are transported day and night, to and from Verdun. The Voie Sacree is Verdun's life line during the Battle of Verdun.

Falkenhayn wanted the French army to 'bleed to death' and not to achieve a speedy victory. The result was that the bruising battle, which Falkenhayn wanted, had now become reality. The victims are not only French, as he had pictured it. Germans also become victims of this battle more and more. Verdun seems to be deteriorating into a mass slaughter, as never seen before.

1 July General Nivelle gives a moving order of the day, in which the French troops are praised for their perseverance and their persistency. He concludes with the famous sentence: 'Ils ne passeront pas!' [They will never pass]

Tuesday 1 August In the German headquarters in Stenay it is now considered to cease the Verdun offensive altogether. There are no more prospects for any victory: there is a shortage of artillery and ammunition. Also there are no more reserve troops available and the front troops are completely exhausted. Nevertheless the battle continues: the area between Fort Souville and the Froideterre-fortification is one large muddy field with shell-holes where French and Germans take turns in attacking and counterattacking.

The French Army Command is determined to beat the Germans for the last time. The major attack is prepared in great detail. The right riverbank of the Meuse changes into an enormous construction site: roads and artillery fortifications are constructed and large supplies of ammunition are stored. General Mangin has eight divisions available, which are trained in the hinterland, in a mock battlefield complete with forts.

Tuesday 24 October at 12:00 a.m. The French attackers come into ac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battlefield is covered in a thick mist. The system of the creeping barrage is working perfectly; the co-ordination between infantry and artillery appears to be flawless and the German front is pushed back. Fleury and the Bois de Chapitre are taken; the Thiaumont-fortification and Fort Douaumont are reached.

Many Germans surrender and disappear into captivity. Fort Vaux is the next aim of attack for the French.

General Ludendorff is in strong favour of withdrawing the troops from front situations, which no longer have a strategic purpose, to be able to avoid unnecessary losses. It is decided to evacuate Fort Vaux and to destroy it.

On Thursday 2 November at 12:00 p.m. the garrison starts marching off and at 1:30 p.m. the explosives are detonated.

Following the fall of Fort Vaux it remains silent at the front for several weeks. In the meantime General Nivelle has been appointed Supreme

Commander of the French army and General Mangin Supreme Commander of the Verdun front. Mangin decides to attack one more time to force the Germans back to their original position of February 1916.

Monday 11 December The French shelling start again in all intensity and on Wednesday 13 December the creeping barrage becomes operational again. Still the Germans do not surrender. The losses on French side are enormous but eventually the front breaks open: Bezonvaux, the Bois de Hassoule, the Bois de Chauffour and Louvemont are recaptured by the French troops.

Tuesday 19 December The German army Command reaches the conclusion that at Verdun, a complete defeat had been suffered. More than 11,000 German soldiers and officers have surrendered; they often did not even come out of their shelters to fight anymore. At that date, the German army is definitively thrown back in its original positions. The Battle of Verdun has come to an end. We can learn the following lessons from the Battle of Verdun: first, the importances of combat commander's command ability, second, the importances of morale forces, third, the total security position of the civilians,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the military. Finally, never underestimate the enemy's capacity.

Key Words : World War I , Verdun, Patriotism, Trench Battle, Morale Forces